

“뭉쳐도 힘든 판에 싸움만... 총선도 대선도 다 포기했나”

뉴스 초점
재신임 정국 보는 지역민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문재인 대표 재신임을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전'을 바라보는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심란하다. 지난해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에게 이어 올레 서구를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을 선택하며 강한 민심의 경고를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결국 이전투구식 '계파 전쟁'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데 대해 지역민심은 깊은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결집'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내지 못하고 당직 등 사소한 문제를 놓고 갈등을 거듭하면서 분란을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혁신안을 두고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지역민심은 편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신임 자체가 통합과 결집에 방점

새정치 끝없는 계파전쟁 좌절
희생·헌신 없는 중진들 비판
혁신안·재신임도 공감 못해

이 찍혀있지 않다는 점에서 어떤 결과도 나오더라도 갈등과 분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의 거취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표가 재신임을 받거나 또는 받지 못한다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히, 호남 민심은 문 대표의 재신임 제안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 가운데 새정치연합 주류 진영과 다선 의원들의 불안한 현실 인식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정권 창출이라는 엄중한 과제 앞에 그 누구도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 다. 중진들이 희생과 헌신보다는 정치적 생존을 모색하려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당내 혁신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에 실망한 지역 민심은 신당을 주목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신당 세력이 호남이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시대적 가치를 선점, 민생을 챙기고 야권의 결집을 이끌 동력이 부족한 데다 충분한 인재 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야권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지역민심 저변에는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도 어렵지 않느냐’는 패배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 관계자는 “추석 연휴 발상에서 정권 창출의 희망을 얘기하기보다는 패배에 대한 우려와 한숨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패배론의 확산은 호남 민심과 야권 성향 지지층의 결집을 저해하면서 내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지금 야권에 필요한 것은 정권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라며 “지도부와 중진들이 솔선해서 정권 창출을 위한 헌신의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총선 승리는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담양 세계대나무박물관 D-3 ‘2015 담양 세계대나무박물관’을 나을 앞둔 13일 담양군 담양읍 세계대나무박물관장 임규에 대나무로 만들어진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대나무와 LED 조명으로 만들어진 이 조형물(높이 11.5m·길이 16m·폭 6.2m)은 봉황(담양 상징)이 받침대(우주)에 놓인 지구본(세계)을 감싸오르는 형태다. 이번 박물관의 주제인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라는 의미를 형상화 했다. 이번 박물관은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장례문화 확 바뀌었다

지난해 10명중 7명 화장...13년만에 4배 가까이 늘어

광주·전남지역 화장률이 매년 급증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에는 사망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1년에 비해 광주는 3배, 전남은 4배 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매장을 위주로 했던 기존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민순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1년~2014년 화장률 추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화장률은 각각 75.3%와 65.3%로 지난 2001년에 비해 광주는 3배(23.8%), 전남은 4배(15.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91.3%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경남 각각 89.3% ▲서울 87.3% ▲울산 87.0% ▲경기 85.3% ▲대전 81.0% 등의 순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9위와 14위였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화장률은 전국 평균인 78.8%보다는 낮았지만,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화장률이 급증하는 이유는 ‘화장이 깨끗하고 위생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진데다, 장례 절차가 간편하고 사후 관리가 쉽기 때문이다. 과거 장례문화가 고인을 땅에 묻는 매장문화였다면 현재는 장례를 화장으로 치르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가. 다만 10년 후인 오는 2014년부터 광주·전남 화장률이 9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리 수요를 예측, 화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화장시설은 북구 1곳이며, 전남은 목포·여수·순천·광양·고흥 등 5곳이다.

남 의원은 “북지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은 낮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시적 매장제도란 묘지의 설치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고, 3회까지만 연장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된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76.5%에 달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금호산업 매각가격 차이 181억으로 좁혀져

채권단 최종 매각가 7228억원 확정...박삼구 회장 수용판 30일 매매계약

금호산업 매각과 관련, 채권단과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사이의 매각가격 차이가 181억원대로 좁혀졌다.

산업은행 등 금호산업 채권단은 지난 11일 오후 산업은행에서 실무책임자 회의를 열고, 7228억원(주당 4만1213원)을 최종 매각가격으로 확정했다. 채권단은 “최종 확정가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며 14일 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가를 안건으로 토의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오는 18일 결의 후 23일 박 회장에 최종 확정가격을 통보해 이를 수용하면 30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연내 금호산업 매각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호그룹은 “채권단 결의를 거쳐 최종 공식 가격을 제시받으면 그룹의 공식 견해를 밝히겠다”고 13일 밝혔다. 지

난달 6503억원(주당 3만7564원)을 제시했던 박 회장은 채권단의 의견을 듣고 지난 9일 7047억(주당 4만179원)으로 올려 인수를 제시했다.

자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 회장 입장에서는 차액인 181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애초 1조2133억 원(채권단)과 6503억원(박삼구)으로 4000억원에 달했던 가격차가 181억원으로 줄어든 만큼 금호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에 대한 우선 인수청구권 행사를 자금 문제로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

박 회장은 채권단 지분 50%+1주에 대한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금호타이어를 제외한 아시아나항공 등 그룹 계열사 대부분을 회수하게 된다. 반대로 채권단 제안을 거부하면 6개월간 청구권 효력

이 상실되며, 이 기간 동안 제3자 매각이 이뤄질 경우 계열사 대부분을 잃을 수도 있다.

박 회장이 7047억원이란 수정 인수를 제시하면서 연내 인수 의지를 드러낸 상황이다. 양측의 계약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인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수시모집 | 062)605-1114

메아리소리가 들려오는 제주여행

버스타어(2박3일)

상품가격	완도출발 269,000원 / 목포출발 249,000원 * 연휴기간 (9/24 - 9/29, 10/8 - 10/11) 1인 5만원 추가
출발인원	10인 이상출발 / 10인 이하 별도 문의 / 20인 이상 오메가택 서비스
포함사항	1. 선박 : 완도-제주 or 목포-제주 왕복 선박 (여객터미널 이용료 포함) 2. 호텔 : 신축 관광호텔 4인실 기준 2박 3. 차량 : 25인승 소형버스 3일 (20명 이상 45인승 대형버스) 4. 전일정 관광지, 전일정 식사 포함 (완도발 7식, 목포발 6식)
선박정보	블루나래호 : 완도(09:30발) → 제주(11:10착) / 제주(16:30발) → 완도(18:10착) 씨스타크루즈호 : 목포(09:00발) → 제주(13:20착) / 제주(17:00발) → 목포(21:20착)
1일차	목포 or 완도항 출발 → 제주항도착 → 비법만들기체험(목포출발 제외) → 천연염색체험 → 메아리체험(제주오름 트레킹) → 저녁식사(갈치조림) → 숙소
2일차	숙소 → 한라산 원전정적(성판악-백록담 코스 / 중식 도시락) → 해수사우나 → 저녁식사(특대지구이) → 숙소
3일차	숙소 → 세계유네스코 등재 수월봉, 차귀도 탐방 → 점심식사(해물전골) → 조랑말승마체험 → 디마파크 기마공연(완도출발 제외) → 농수산물 직판장 → 제주항 → 목포 or 완도항 도착

본 일정은 현지 기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렌터카 자유여행(2박3일)

상품가격	4인기준 1인 149,000원부터 3인기준 1인 169,000원부터 2인기준 1인 214,000원부터 * 본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출발인원	2인 이상출발
포함사항	1. 항공 :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권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2. 호텔 : 신축 관광호텔 2박 기준 (2인 조식포함) 3. 차량 : K5, YF소나타 LPG 기준 (48시간) /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 포함 4. 식사, 관광지 불포함.
항공정보	항공사 : 아시아나항공 / 이코노미(일반석) 항공사 : 광주출발 : 15:45 제주출발 : 14:25 (2박3일 일정) 유의사항 : 항공기 정비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스케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일차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도착 후 렌터카 인수 → 자유일정 → 숙소
2일차	자유일정
3일차	숙소 → 자유일정 → 제주공항도착 및 렌터카 반납 → 광주공항도착

본 일정은 현지 기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할인 제주숙소

제주할인 펜션	1박 50,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제주할인 리조트	1박 8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제주할인 호텔	1박 7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할인 제주렌터카

아반떼, 레이, k3, SM3	24시간 23,000원 연휴기간(9/24-9/29, 10/8-10/11) : 24시간 40,000원
k5, YF소나타	24시간 26,000원 연휴기간(9/24-9/29, 10/8-10/11) : 24시간 45,000원
카니발, 그랜드스타렉스	24시간 49,000원 연휴기간(9/24-9/29, 10/8-10/11) : 24시간 79,000원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컨소시엄 참여업체 예약문의 | 064-743-1100
제주동행, 제이엘, 송죽레저관광, 가자일영투어, 팜투어, 대호글로벌투어, 제주관광정보센터